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부자      제목 :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성경: 마태복음 19장 21-30절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5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제자들은 기존의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는 가르침에 놀람)

26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없다는 문제지 정도의 문제 아니라는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기부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 Key라는 의미.)

27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러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개인적 over action)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성령께서 오시게 되어, 또는 재림하시게 되어.)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떤 사본에는, '부모나' 아래에 '아내나'가 있음)(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본문에 100배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또한 박해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30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19:21-30) (재물의 욕심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하다. 그러나 실패해서 끝까지라도 천국에는 갈 수 있을 것

## 이다. 다만 부끄러울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오하여서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다. 매우 그럴듯하게 풀리는 것 같지만, 함정에 빠지게 된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많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주제는 영생(혹은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과 재물(혹은 세속적인 재화)이다.

-구약성경은 간단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가치로 보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왜냐면 29절에 보면 ‘여러배를 받고’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는 말만 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가치가 되지만,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재물을 여러 배 받는 것도 가치 있는 일로 묘사되어 있다.

-그렇다면 21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라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의 보화’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얻게 될 보화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 이란 뜻이다.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상당한 재산가였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친구가 만일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 돈을 나눠준다면 그는 요새말로 사회 환원, 금융 가치로 본다면 분명히 자금을 회전시키는 일을 감당하였을 것이다. 그럼으로 당시 많은 사람들의 숨통이 틈

였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을 회전시켜서 재화를 더 많이 창출해 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통해서 당시의 경기가 회복하게 될 것을 희망하고 계신 듯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이 청년이 아마도 크게 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더 훌륭한 일터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청년이 재산을 정리하고 다시금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으리라 생각된다. (적어도 몇 달.)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에게는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 만약 부자들이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소홀 한다면 정부는 그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려서라도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부자의 사명은 자기가 더 부자가 되는데 있기 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데 그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자원은 날마다 이 지구상에 엄청난 양으로 쏟아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자원을 몇퍼센트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부자는 이런 자원들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자신의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오직 신용과 큰 금융만이 큰 산업을 일으키고, 큰 산업만이 막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자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신용을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한꺼번에 또는 꾸준히 일으킬 수 있는 신용의 한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부자인지 아닌지가 정해진다.

-그런데 진정한 부자는 내가 이 신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럴 때 나도 돈을 버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면서 떼돈을 벌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세우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나는 수수료를 받을 뿐이다.(또는 적은 이자) 왜냐면 그래야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보화를 쌓아놓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내가 그 보화를 계속적으로 회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부자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부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심판하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신다.

-즉, 결정하는 지위에 앉기를 원하신다. 무슨 결정을 의미할까? 그것은 세상을 더 선하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려고 결정하는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리가 되고, 결정권자가 되어서 이 세상이 더 선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리사욕을 채우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나중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귀중한 것의 순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중 된 자들로서 처음 된 자들이 될지언정, 처음 된 자들로서 나중된 자들이 되지는 말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전도    제목: 부흥을 준비하는 성도    말씀: 고린도전서  
10장23-33절

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교회에 덕을 세우는것에 집중하자.

-교회는 자기 맘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는 곳도 아니며, 자기가 인정받아야 하는 곳도 아니다. 특히 하나님께 인정받아야하는 곳이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자다. 왜냐면 자기는 진짜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교회에서 자기의 몫을 챙기려는 사람은 실패한다.

-교회에서는 자기의 몫이 없다. 만약 몫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다.

-만약 교회에 자기의 몫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몫이다.

25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기 양심에게 묻지 말라는 뜻이다. 이것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 아닌가?

-이거 유기농 아닌가? 이거 이단이 생산한 거 아닌가?

-먹고 탈나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다.

-파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뜻이다.

-악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을 과도하게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 전도에는 도움이 되지도 않고 지혜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되, 주의할 사람에게 주의하는 것이

지혜가 된다.

26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혹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 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기도하며 거룩한 자가 먹으면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

27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알게 한 자;알게 한 자가 이미 양심이 거리낌이 되어 마음이 상했으니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먹지 말아주라는 뜻.

-얼마든지 새누리당을 만나면 새누리당이 되고, 민주당을 만나면 민주당이 되라는 뜻. 두 당 모두 애국심이 투철한 것이 사실.

29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즉, 양심의 기능이 가치관을 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결국 남의 양심이 정하는 가치관도 존중하라는 뜻이다.

-그가 무슨 경험이나 생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지 그것은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이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서 어떤 말을 들으면 나름대로 판단하여 정하든지, 또는 영적 리더들과 상의해서 정하면 될 것이다. 절대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면 플렉시블 한 것이 지혜가 된다.

30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핍박은 받아도 비방은 받지 말라. 즉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은 하지 말라.

-핍박이란 악한 자들에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선량한 사람들에게 비난 받는 것이 핍박은 아니다.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불편한 자가 되게 하지 말라. 자신을 편리한 자로 여기도록 하라. 고집스럽거나 까다로운 자가 되지 말라.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술친구들에게 불편한 자가 되게 하지 말라. 그들을 심리적으로 괴롭게 하거나, 그들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우라.

-다만 그들의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에 동참하지는 말라. 그들도 내가 그 악한 행동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33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전 10:23-33)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때가 되면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라.

(같은 교인이라도 다른 신앙형태를 가졌다고 그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에게 적절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고난 당할 때에 돕고, 그가 슬퍼할 때에 같이 슬퍼하고, 그가 웃을 때에 같이 웃어 주어야 한다. 그를 정죄하면 고난 당할 때에 웃고, 그가 웃을 때에 나는 화를 내며, 그가 슬퍼할 때에 나는 기뻐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우상숭배자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라도 그들이 고난을 당할때에 함께 짐을 져주고, 그들이 슬퍼할 때에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한가지 방법도 된다.

-원수가 주릴 때에 먹이라.

